

우리가 상상한 미래

16팀 / 김정태 김지수 아미라 장우성 정승우



1. 집마다 인공지능이 빌트인 형식으로 탑재되어서 날씨, 건강 상태, 옷, 식사 준비 등 가사를 도맡아서 합니다.
2. 사람마다 머리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 같은 보조 장치가 대중화됩니다.
3. 평상복이 외골격 슈트처럼 강화 효과가 있어서 적은 힘을 들이고도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4.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많이 상용화되어서 사고가 나지 않아 고효율 고밀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지속적인 기술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컴퓨터의 연결에 의한 인간의 자의지 저해 같은 윤리적인 문제나 자동운전 사고의 책임 주체 등을 정하는 법과 제도가 자세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규제에 관한 법과 제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김지수: 최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인간의 신경 신호를 기계가 해석해 움직임을 구현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 데이터의 외부 연결은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술 발전과 함께 법적·윤리적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

아미라: 미래 사회의 모습이 편리하고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기술에 맞춰가는 것 같았다. 편리함 뒤에 숨은 인간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생각하게 된다.

장우성: 이미 현재에도 가정의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인 IoT 기술이 존재하지만, 미래에는 더 발전하여 가전제품을 넘어서 다른 소소한 물건들에도 컴퓨터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한 삶을 보낼 수 있을 거 같아 기대된다.

정승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인데,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킹해서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수습 불가능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초연결 사회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보안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안 분야에 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